

언론중재위원회 NEWS 사립

P R E S S A R B I T R A T I O N C O M M I S S I O N

01

2016 + January
Vol. 187

따뜻한 마음씨로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그 공감과 소통의 힘으로
활기차고 따뜻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위한 기도



우리의 남은 생애 꿈 하나를 가지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로 가서 한 송이 꽃이 되는 꿈
겨울 차가운 얼음 바닥에 어룡거리는 상처와
아직도 그 문밖 서성이는 발걸과
어두운 골목 울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에게로 가서
따뜻한 햇살, 훈훈한 향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섬약합니다
거리와 동굴과 맛있는 음식의 우상을 섬깁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어떤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상대방을 혀의 칼로 찌르고
더 마음 아프게 파 후벼 팝니다
교만하여 수그릴 질 모르는 우리의 죄
우리 이름과 자리를 드러내고 우쭐해 합니다.
이제 정말 이 좁은 비판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사람의 마을에 피어나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
이웃을 돌보는 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돌본다라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불편한 이웃의 평안을 위해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집, 복음과 사랑의 나무 그늘,
서로에게 등을 기대 수 있는 폭신한 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아직도 어둠 속 울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울고 있는 영혼이 푸른 풀밭 물가로 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마을을 덮고 하늘과 구름과 산을 덮는
꽃의 몸이 빔어내는 향기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흔적 없이 자산을 녹이는
화목의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겨울날, 얼음장 밑 쟁쟁한 미나리순 되고 싶습니다
여름날, 맑고 순한 로렘나무 그늘이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비백飛白처럼 보이지 않는 슬픔이 거칠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등불 하나 켜고 싶습니다.

이지엄

-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등단(시조 '일어서는 바다')
- 경기도 융합교양대학장,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춘문에 심사위원 역임. 현재 계간 <열린시학>, <시조시학> 편집주간
- 성균문학상, 평화문학상, 한국시조작품상, 중앙시조대상 등 수상
- 시집 『어느 종착역에 대한 생각』, 『씨앗의 힘』, 『사갈의 마을』, 『다섯 계단의
어둠』, 시조집 『사각형에 대하여』, 『북으로 가는 길』, 『해남에서 온 편지』 등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 ADR 전문교육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과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

트위터 twitter.com/pac_news

Contents

2016 January Vol.187

04 인터뷰

심재철 /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06 미디어트렌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07 문화토픽

매력적인 올림, 오페라

08 세상읽기

생활 속 노블레스 오블리주

09 언중노트

복집 사장이 조정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10 여행수첩

페루 아마존의 밤

12 언론법 이모저모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필요한 언론중재법 개정

14 위원회NEWS

15 조정중재사례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1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한라에드플러스(주)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이 건강한 여론형성을 위한 의제설정을 통해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위스컨신대학교 매스컴학 박사
고려대학교 언론연구소 소장
<고대신문> 편집인 겸 주간
제41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공개형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준비위원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언론대학원장(현)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 제휴 정책을 개선하고자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형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이 평가위원회는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심재철 고려대 교수는 이 위원회가 21세기형 디지털 허친슨 위원회와 같은 자율적 심의기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언론학회 회장으로서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그를 새해 첫 번째 인터뷰어로 선정했다.



Q.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나 미디어의 영향력 등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주로 뉴스를 접하고 소비하는 매체가 잡지에서 신문, 신문에서 방송으로 바뀌었다가 방송이 인터넷으로, 지금은 포털 중심으로 언론의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하나의 매체가 자리를 잡으려면, 도입기 10년, 성숙기 10년, 정착기 10년 등 3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포털이 도입된 지 20년이 채 안됐으므로 포털은 아직도 성장기에 있습니다. 최근 대다수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올드 미디어의 영향력이나 역할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이용자는 여전히 기존 매체를 더 신뢰합니다. 다

만, 뉴스를 확산하고 전파하는 행위가 주로 포털을 통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어렵습니다. 포털이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래도 기존 매체를 대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올드 미디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배경과 평가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A. 매체 수가 점차 늘어나고,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의 영향력도 비례해 커졌습니다. 언론들이 포털과의 뉴스제휴를 통해 기사 노출을 늘리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정적인 기사를 먼저 전송하며, 동일한 기사를 반복해서 노출시키는 기사 어뷰징의 문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포털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포털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설명력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공개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구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처음 준비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를 포함해 7개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8개 단체가 추가돼 현재는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 모두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도 옐로우 저널리즘이 팽배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았구요, 그래도 언론 없이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됐고, 당시 시카고대학 총장인 로버트 허친슨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허친슨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는데요, 지금의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처럼 포털을 자율심의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니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새로운 언론의 문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포털뉴스 매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21세기 한국형 디지털 허친슨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Q. 최근처럼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뉴스가치는 무엇인가요?

A.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TUFF'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언론보도는 진실해야 하고 Truthful, 편견이 없어야 하고 Unbiased, 충분히 Full, 공정하게 Fair 보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뉴스의 설명력이 높아지게 되며,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사회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언론은 외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잘살아보자고 경제부흥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사회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오늘날의

언론은 특정방향의 프레임으로 사회를 이끌어어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부스터리즘에 근거한 리더십보다는 사회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나타난 결과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이를 공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객관화시킴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톱 다운식 정보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여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합니다. 올드 미디어이건 뉴미디어이건, 언론은 팩트^{fact}에 기반한 설명력 높은 보도를 통해 사회 제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 제 세력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Q. 지난해 10월까지 제41대 언론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학회를 이끄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A. 한국언론학회는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학문적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지난 1959년에 설립됐습니다. 저는 제41대 언론학회장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학회장으로서 중점을 둔 부분은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적 공공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남북한 화해와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부터 국가 간, 인종 간, 집단 간, 세대 간에 일어나는 소통 단절과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제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털 뉴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학회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포항공대에서 <응답하라 언론학-한국사회의 위기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대에서 열린 가을철 학술대회에서도 <응답하라 언론학-초연결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회원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번 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연 것은 저희 집행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학회의 사무실을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저희 언론학자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Q. 현재 고려대 언론대학원장과 미디어학부장을 겸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교육철학과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A. 저는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 '여성 인력의 전문화'를 교육의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세기에는 여성 인력의 전문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가 고속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남성이 큰 기여를 했고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성장하면서 언론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우수한 여성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며 터프한 남성 문화 위주의 사회에서 생길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여성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 인력이 언론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Q. 언론이 언론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떠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지요?

A. 언론이 중요한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통계적 판단으로 보면 '일종오류'에 해당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실인데도 크게 보도하는 것은 '이종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보도할 때 처음에 언론은 메르스 환자 발생 기사를 1단 혹은 2단으로만 보도했을 뿐, 첫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메르스 사태를 중요한 이슈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건이나 처음 언론보도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사회위기 관리가 안됐다고나 할까요. 언론은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면서 처음에는 위험한 질병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일종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질병이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종오류에 대해서도 균형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언론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종종 틀리고요. 그래서 언론의 수준을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언론인은 중요한 뉴스를 추적해서 보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늘 일종오류와 이종오류를 분류해냄으로써 판단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는 기사를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기자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 관련 기사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30%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는 60%~75%가 부정적인 뉴스로 차 있습니다. 물론 나쁜 뉴스가 편집국에선 좋은 뉴스라고 하지만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직하게 보도해야 하는 사안에는 건강한 여론형성을 위한 의제설정을 통해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Q. 올해로 위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합니다. 위원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개인적으로 신청인이 되어 조정심리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의 구성이 법관, 전직언론인, 학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개발한, 개발도상국에도 모범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느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좋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국민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언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우리는 스마트^{smart}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 홈^{smart home}, 스마트 카^{smart car}, 스마트 워치^{smart watch} 등 기존의 기능에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더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제어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스마트' 개념이 실현되고 있다. 아직은 생소한 '스마트' 세상은 편리함과 더불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뚝뚝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아서 파악하고 제공해준다.

미디어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통화, 문자 등 휴대전화의 고유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뉴스를 읽고 영상을 보고 쇼핑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뉴스의 소비다.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중 80% 가까이 온라인으로 신문을 읽고 이 현상은 젊은 세대일수록 두드러져 20, 30대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신문을 읽는다. 또한 동 기관의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 조사에 참여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99%가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 생활정보 등 정보를 얻고 있다. 이렇듯 뉴스를 종이신문이 아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포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소비하는 현대에는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형태가 약화되고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골목할만한 현상은 뉴스의 선택적인 소비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관심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걸러내는 것조차 버겁다. 따라서 포털, 페이스북, 트위터, 버즈피드, 씨카, 피키캐스트, 카카오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선택된 뉴스를 다시 개별적으로 선택해 읽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뉴스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언론매체는 뉴스 구독의 행태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혹은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를 가치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이미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까지 함께 하거나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 플랫폼을 통해 나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제공되는 콘텐츠 소비를 선호하는 것이다.

버즈피드, 피키캐스트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나의 관심사와 과거 콘텐츠 소비 선택을 반영해 선별된 뉴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과잉과 선택 장애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콘텐츠 소비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콘텐츠를 선별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고 관련 있다고 느끼는 콘텐츠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 관심도 관련도 없는 뉴스는 미리 제외해주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이다.

뉴스를 소비하는 행태의 변화는 뉴스 콘텐츠 형태의 변화도 가져왔다. 자투리 시간에 미디어를 이용하고 오랜 시간 집중하길 원하지 않는 스낵컬쳐 세대에게 카드뉴스 등 내용의 핵심을 이미지와 결합하여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뉴스가 인기다. 또한 뉴스 소비는 일방향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할 때 댓글을 읽으며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이지만 온라인에서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댓글을 통해 교감하면서 공유와 공감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나아가 패러디 등 관련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결국 스마트 미디어는 스마트 이용자를 가능하게 하고 스마트 이용자는 스마트 미디어와 스마트 콘텐츠로의 진화를 다시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시간성, 맞춤형, 상호작용 등으로 표현되는 스마트 미디어의 특성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관련 있는 좋은 정보와 뉴스만을 소비해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어 하는 똑똑한 이용자들의 요구와 부합하며 가치 있는 뉴스를 생산, 제공해야 하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스마트함'일 것이다.

매력적인 올림, 오페라

—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한 오페라의 세계 —



“‘오페라’라는 말에는 이상하게도 매력적인 올림이 있다. 나는 결코 오페라 광이나 마니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페라라는 말은 묘하게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에 나오는 말이다.

하루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오페라^{OPERA}라는 말의 어원은 ‘작품’을 뜻하는 라틴어 OPUS의 복수형에서 나왔다. 처음부터 음악을 위한 극^극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오페라는 초반 ‘드라마 인 무지카, DRAMA IN MUSICA’ 또는 ‘오페라 인 무지카, OPERA IN MUSICA’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훗날 짧게 OPERA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유래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오페라에서는 드라마가 음악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 할지라도 공감 가는 이야기가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오페라가 아니다.

초기 오페라는 귀족이나 제후들의 특별한 날을 위한 축하공연 형식이 많았으므로 음악 이외에도 반드시 구경거리가 동반돼야 했다. 듣는 귀도 만족스러워야 했지만 눈으로도 풍부한 볼거리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음악 뿐 아니라 무대미술, 의상, 춤 등이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오페라가 오늘날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르네상스 이후 서양문화사에서 오페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페라는 단지 음악적 장르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미술, 문학, 무용 등 다른 예술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또 작품에는 반드시 당시 사회상이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필자는 종종 ‘오페라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예를 들어 부르주아 청년과 파리 화류계 여성 사이에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라 트라비아타’는 오페라의 원작소설의 작가 뒤마 피스의 자전적 이야기고 여기에 작곡가 베르디의 개인적인 경험도 더해졌다. 또 산업화가 진행되던 당시 파리의 향락적인 문화와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도 함께 담겨있어 관객들은 베르디 당대의 사회상을 또렷이 엿볼 수 있다.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음악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이 작품에서 음악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까운 일이고 베르디의 의도와도 어긋난다. 베르디는 작품을 통해 동시대 사람들의 위선과 속물근성을 비판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페라에는 음악만이 아닌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어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대상이지만 오페라와 친숙하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찮다. 유명 아리아나 서곡 정도는 알고 즐길 수 있다 해도 오페라 초심자가 극장에서 전막 오페라를 감상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다. 또 인간의 귀란 유난히 익숙함에 반응하기 마련이어서 잘 모르는 음악이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경우 지루함과 졸음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게 된다. 가독이나 살기 힘든 세상에 그런 고난을 참으며 오페라극장까지 다니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페라 공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의 명작오페라 공연 실황이 블루레이나 DVD에 담겨 집에서 감상 할 수 있고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다. 또는 유럽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즐길 수도 있다. 아니면 가장 고전적인 감상방법인 음악듣기도 있지만 오페라는 시각적인 요소도 중요한 예술이기 때문에 되도록 동영상과 함께 감상할 것을 권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는 친해지고는 싶지만 다가가기 까다로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에 이런저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오페라와 사귀기 시작한다면 멀리게 될 신세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 황홀할 것이다.

생활 속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난 해 12월 1일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지분 중 99%(52조원)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딸 출산을 맞아 밝힌 기부 계획에서 그는 자선회사를 세운 뒤 주식을 기부하고, 이 회사는 맞춤형 학습, 질병 치료, 강한 공동체 만들기, 이를 위한 사람들 연결하기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보름 쯤 지난 뒤 미국 프로농구(NBA) 시카고 불스의 전설 마이클 조던도 통큰 기부 행위에 합류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23개 비영리단체(조던의 등번호가 23번)에 기부한다면서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시카고 트리뷴은 '수백만 달러는 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업체 두 곳과 상표권 침해 문제로 6년간 법정 다툼 끝에 받은 합의금입니다. 조던은 "비영리단체들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교육, 웰빙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떨떠름하게 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커버그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지배권을 넘기는 절세 효과를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자들의 기부는 결국 그 사회를 장악하려는 자본주의(philanthrocapitalism·philanthropy와 capitalism의 합성어)적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지요.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는 쌓여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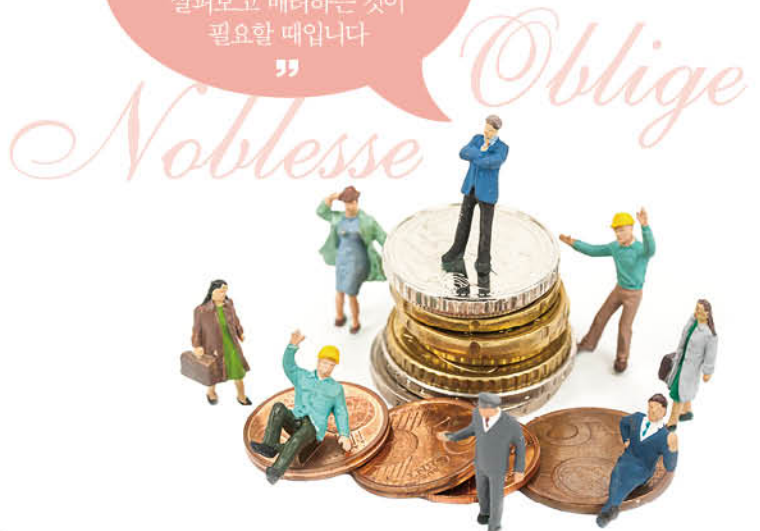
14세기 백년전쟁 때의 일화입니다. 잉글랜드 군에 포위된 프랑스 칼레의 시민들이 1년간 저항했습니다. 결국 대학살 직전에 놓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는 지도급 인사 6명을 넘기면 모든 시민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등 지도급 인사 6명이 자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오귀스트 로댕의 유명한 조각상 '칼레의 시민들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남을 위한 기부 같은 행위나 희생정신이 발휘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

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 말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의 공공봉사나 기부는 의무이자 명예로 인식되었고,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는 전통은 세워졌지요. 책임과 희생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신문·방송·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보고 들은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갑질, 을의 분노, 금수저·흙수저, 양극화, 진영 논리, 귀족 노조, 칠포 세대... 뭔가 임계점을 향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이런 비정상상의 많은 부분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갑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지도층을 무조건 공격만 하는 일부 편향된 수준 낮은 논리는 무시하기로 하지요. 하지만 탈세, 편법 상속, 부의 천박한 과시, 유력자들의 가족 취업 압력 등등 지도층 인사들이나 기득권층의 비양심적 비도덕적 행위들은 보통 사람들을 분노케 만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고귀한 사람들만 하는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은 왕이나 귀족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에서 조금 더 책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위를 살피보고 배려하는 행위, 말하자면 '생활 속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부 행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NGO활동가가 얘기하더군요. 기부는 사회적 에너지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러면 사회가 훨씬 강해진다고. 여기서 기부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 우월한 자가 조금 더 양보하는 것 등을 포함한 의미였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소소한 생활 속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그래야 2016년이 조금은 덜 팍팍해지고, 조금은 더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
매일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에서 조금 더 책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위를
살피보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



복집 사장이 조정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허위 보도는 맞는데, 법률적으로 정정보도 신청이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해야 될 때가 종종 있다. 몇 년 전 위원회에 흥분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때는 바야흐로 여름, 올림픽의 계절이었다. 중앙 일간지에 올림픽 축구 8강에 대한 분석 보도가 나갔는데, 과거 올림픽 8강 국가를 소개하면서 한 나라를 틀리게 보도해버린 것이다. 이 남성은 어떻게 중앙 일간지가 이런 중차대한 실수를 할 수 있느냐며, 정정보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해당 기사가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했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만을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로 보고 있는데, 이 남성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데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안내 드렸으나, 그럼에도 조정 신청을 하셨고, 결국 사건은 기각으로 끝났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만 하면 조정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앞의 남성이 축구 잡지 필진인데, 문제의 기사를 읽고 잘못된 기사를 써서, 성난 축구팬들로부터 야유를 듣고, 결국 이 일로 잡지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이 남성은 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상담 건이 있었다. 내가 복집 사장인데, 옆집 복집 주방장이 분명히 올 초에 복어요리 자격증을 땀단다. 그런데 맞집 소개 방송에서 옆집 주방장이 15년 경력이라고 소개가 됐다는 거다. 옆집 주인은 가게 때문에 허위 방송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써 붙였고, 그 이후 자기 가게 손님수가 많이 줄었다며, 해당 방송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거짓말한 옆집 주인이 알미운 마음도, 속이 터지는 울분도 이해가 됐다. 그러나 복집 사장도, (가상의) 축구 잡지 필진도 둘 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그들이 방송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는 '피해를 입은 자'를 "보도에서 지명이 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실명이 거론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보도된 경우에만 언론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여 조정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언론의 책임만큼이나 언론 자유의 보장도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자 복집 사장은 아쉬움이 잔뜩 남는 목소리로 "피해를 입긴 입었는데, 법상으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죠?"라고 말을 흐리며 전화를 끊는다.

조정 신청 당사자에 대해 안내를 하면, 허위의 보도 내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그 보도로 인해 그릇된 정보를 믿게 되는 전체 국민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는 분들도 가끔 만난다. 법률상으로는 틀린 말인데, 묘하게 말문을 막아버리는 포스가 있는 말이다.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범위를 한정짓는 이성적인 머리보다 피해자를 넓게 인정하는 가슴과 사명감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가령 기자들이 기사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오보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다면, 억울한 제2의 복집 사장이 덜 나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페루 아마존의 밤

밤이 물러가자 아마존에는 신세계가 찾아왔다. 새벽녘부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동물들의 발걸음과 새들의 지저귀이 귀를 간지럽혀 눈이 번쩍 뜨였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모기장을 걷어제치자 방갈로 테라스 너머로 어스름한 하늘을 가르는 아침햇살이 번지고 있다. 혹시나 때를 놓칠 새라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일생에 몇 번 없을 정글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 부지런을 떤 사람들이 벌써부터 한쪽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사각거리는 풀숲을 가로질러 강둑에 서자 전 날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한 아마존의 원초적 아름다움에 폭풍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 폭 250m에 달하는 마드레 데 디오스 강은 밤새 잠들어있다 기지개를 켜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며 흘렀다. 간밤의 폭우로 강바닥에 깔려있던 적갈색 토양이 많이 올라와서인지 더욱 짙은 색으로 흐르는 자태가 흡사 한 마리의 용과 같았다. 그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마주하고 있노라니 어느 순간 동쪽을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강물 저편이 서서히 짙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마존의 젓줄과 광활한 하늘이 맞닿은 지점에 어렴풋이 붉은 빛이 피어올랐고 이내 온 세상에 연한 주황빛이 퍼졌다. 그리고는 곧 커다란 태양이 물안개를 가르며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잔하고 온화한 빛을 뿜으며 나타난 해는 순식간에 하늘로 떠올랐다. 간밤의 폭우로 한껏 생기를 머금은 열대의 식물들은 초록빛이 극에 달했다.

그날 내 눈앞에 펼쳐진 아마존의 아침 풍경은 한마디로 장관이었다. 끈적이는 공기와 낮선 환경 때문에 살짝 겁에 질렸던 내 마음에도 환한 햇살이 들어온 기분이었다. 원시적이기 그지없는 자연의 깊은 품 안에서 인간은 그저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장엄한 대자연의 가르침에 숙연해졌다. 나 자신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겼던 벌레나 곤충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주의 일부이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위대한 신의 창조물임을 깨닫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유유히 흐르는 황토빛 아마존의 강물이, 수많은 작은 생명이 세찬 빗물에 씻겨 나가버린 땅 위에 다시 떠오른 태양이, 그 안에서 활기차게 질긴 삶을 이어가고 있는 동식물들이,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마존 여행의 묘미란 바로 이런 것이리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시계는 겨우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번덕스런 날씨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방갈로를 나서 액티비티 본부로 향했다. 그곳에는 열대우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 출신의 탐험대장들이 포진해 있었다. 독특한 새와 야생동물 관람 투어, 정글 속 피크닉, 카누 여행, 낚시, 캐노피 체험 등 수없이 많은 할 것들도 준비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캐노피 워크라는 투어를 선택했다.

캐노피란 원래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들이 해발 20~30m 높이에 그물처럼 드리우는 나뭇가지들을 뜻하는 말이다. 내가 머문 리조트에는 캐노피의 식생을 관찰 연구하기 위해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설치한 지상 30m 높이의 망루들과 그것을 연결하는 흔들다리들이 있었다. 캐노피 워크는 바로 그 흔들다리들을 건너 망루를 돌면서 아마존의 밀림을 내려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속도에는 별로 겁을 내지 않는 반면 높이에 큰 공포를 느낀다. 그런데 30m 높이에 설치된 흔들다리라니 아무리 일생일대의 경험이라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엔 동반한 사진작가 레이나한테 '너만 체험하면 된다. 난 근처까지 동행만 하겠다'고 따라나선 걸음이었다. 우리의 안내를 맡은 이는 띠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토박이 청년이었다. 조선시대 사형집행인인 망나니들이 쓰던 것처럼 크고 둥글게 흰 위협적인 칼을 하나 집어 든 그를 따라 드디어 아마존에서의 두번째 모험이 시작되었다. 본부를 벗어나 방갈로들을 끼고 강둑을 조금 건다보니

PERU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사이로 좁은 길이 하나 나타났다. 길이라기 보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 풀이 자라지 못해 저절로 생긴 통행로 정도인데 입구에서부터 얼마나 진흙이 말썽을 부리는지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장화는 물론 온몸에 진흙이 튀어 붙었다. 때로는 상당히 수다스럽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신기한 식물이나 열매가 나올 때마다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어 그것을 쪼개거나 잘라 우리에게 선물해주었다. 핑크색을 띤 샴페인 잔 모양의 버섯이 나타나면 뜯어서 건배도 하고, 모기를 쫓는 풀이 보이면 뽑아서 모자에도 달아주고, 매운 맛을 내는 열매가 있으면 혀끝에 대고 자지러지는 몸개그도 보여주었다.

정글 투어는 흥미로운 모험으로 가득했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앉았음을 고백해야겠다. 몇 걸음에 한번씩 발목을 잡는 진흙발에 걸려들었다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가 하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점점 더 많은 모기떼와 전쟁을 벌여야했다. 하지만 곧 쓰러질 듯한 위기의 순간에도 함부로 주변 식물을 부여잡고 일어서서는 안되었다. 어떤 것이 독을 품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가시로 뒤덮여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손에 부채를 들지 않았을 뿐 놀이마당에서의 줄광대처럼 균형을 잡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 채 조심스레 한발씩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사방을 에워싼 수천, 수만 가지의 동식물들을 관찰하며 걷다보니 첫 번째 망루에 다다랐다. 잠시 숨을 고르고 발밑이 흰히 내려 보이는 아슬아슬한 나무 계단을 올랐다. 드디어 정상에서 마주한 놀라운 풍경, 그것은 과연 온몸이 땀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도록 걸었던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만한 것이었다. 내 몸뚱이보다 더 큰 나뭇잎들이 발 아래로 카펫처럼 내리깔려 있다가 이따금씩 카드섹션처럼 빛을 달리하며 출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혹시라도 발을 헛디디 그 안으로 떨어졌다가는 맹수와 벌레들의 먹이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은 아찔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 두려움이 감동을 이기지는 못했다. 잠시 난간에 기대어 정글숲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자니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이 대자연 앞에 미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그때, 레이나가 사진 한 장 찍어줄 테니 흔들다리 위로 몇 걸음만 걸어가 보라고 나를 꼬시기 시작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거기까지 가서 인증샷 한장 없이 돌아서긴 너무 아깝지 않다. 그런데 이 맹랑한 아가씨가 ‘조금만 더 뒤로, 한 발짝만 더, 거기 서면 사진 앵글이 안 나와, 조금만 조금만...’이라며 나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바람에 찢끔찢끔 걸음을 옮겨 사진을 찍고 나니 어느새 흔들다리 삼분의 일 지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후회하기에 이미 때는 늦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똑같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언제 또 내가 아마존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겠나 싶어 용기를 내보았다. 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다음 망루까지 걸음을 옮기자 일행은 일제히 환호했다.

“잘했어! 거봐, 할 수 있다니까. 고고고!”

그렇게 해서 난 총 일곱 개, 길이로는 350m에 달하는 다리를 모두 정복하고 캐노피 투어를 마칠 수 있었다. 다리가 심하게 흔들릴 때는 엉성한 그물 사이로 빠질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콤플렉스처럼 간직하고 있던 고소공포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 덕분이었다. 오전에 걸었던 길을 되짚어 숙소로 돌아왔을 땐 온 몸이 진흙과 땀으로 범벅되어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었다. 황토빛이었던 강물에 웬지 붉은 기운이 감돈다 싶더니 아름다운 석양이 하늘을 장식했고 이내 전날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통째로 삼킬 듯한 폭우가 쏟아졌다. 부랴부랴 방갈로 테라스에 장화를 거꾸로 세워두고 샤워기로 뛰어들었다. 옷을 벗고 나니 비로소 밀림 속을 헤집고 다닌 흔적이 드러났다. 수없이 많이 모기에 뜯기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가 따끔거리 고통스러웠다. 찬물에 샤워를 하고 약을 발라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에 불평할 기운도 없이 피곤이 몰려와 만사 제치고 곧바로 침대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 또하나 기다리고 있었다. 높은 습도 때문에 온종일 수증기 속을 거니는 것만 같더니 침대보마저 어찌나 축축한지 꼭 짜면 금세 물이라도 나올 것만 같았다. 온몸이 근질거리는데 물에 젖은 이불 속에서 벌레 울음소리와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야 하는 찜찜함을 과연 경험하지 않은 이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의 적응력이란 참으로 놀랍다. 결코 잊지 못할 아마존의 밤, 평소 같으면 발가락 하나도 집어넣지 못했을 천연 물침대에 드러누운 채, 자연 앞에 깨끗하게 기권표를 던지는 패자가 된 마음으로 나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 위 글은 필자의 페루여행기 중 일부입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필요한 언론중재법 개정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혁명으로 언론미디어 생태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나, 언론중재법이 제시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따르고 있다. 법이 사회변화에 따른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지 못할 때 법치주의는 퇴색되고 법의 생명력은 반감된다.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디지털화할 시기가 벌써 지났다.



인격권 침해 보도에 대한 진정한 치유는 지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세상의 언론보도가 다 진실만은 아니다. 허위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현저하고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피해회복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요즘 같은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기사는 검색을 통하여 존재한다'고 한다. 인격권 침해보도에 대하여 통상의 정정보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 기사는 인터넷상 그대로 남아있어 검색되고 유통된다. 침해상태는 상존하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거나 증폭된다. 환부는 도려내야 하듯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사는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 언론조정 절차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침해기사의 삭제를 원한다. 사람의 인격권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가치가 부정되어야 한다. 굳이 잊혀질 권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보도로부터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검색과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다. 대법원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기사삭제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당연한 법리와 실무의 관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언론중재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사삭제청구의 조정절차를 도입하지는 것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댓글이 나르샤...

이미 법원의 판결, 조정, 화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되었으나, 원보도 내용이 인터넷에 복제·전파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구제절차를 반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구제가 확정된 내용이니만큼 언론중재위원회의 간소한 직권조정이나 임시조치절차를 통하여, 또는 피해자가 확정된 판결 등을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면, 보다 간명하고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물론 펄글 작성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한다) 침해성 펄글은 인터넷을 통하여 천방지축으로 날아다니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의 기어다니는 피해구제제도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사 댓글은 명석을 깔아준 축에서 결자해지해야

언론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로 고통받거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부지기수다.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은 기사의 파급력에 편승하여 일파만파로 피해를 증폭시킨다. 댓글이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피해자가 게시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게시자들이 익명이거나 그 수가 너무 많은 경우 그들을 일일이 찾아내거나 모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은 불문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기사에 대한 독자의 댓글을 허용하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게시자의 익명권까지 허용하는 등으로 댓글을 유도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로서 언론사나 포털사 등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기사에 달린 댓글은 기사와는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언론사 등은 그 게시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댓글에 대하여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불법임이 명백한 댓글을 지체없이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포털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댓글은 뉴스서비스 콘텐츠의 일부로서 뉴스서비스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Delfi

AS v. Estonia Case). 한편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일괄하여 댓글에 대하여도 함께 신청하여 처리한다면 분쟁해결의 일회성과 경제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언론보도에 댓글 게시판이라는 명석을 깔아 놓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언론사, 포털사 등은 불법적인 댓글에 대하여 마당개설자로서 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다. 모든 댓글이 아니라 언론보도와 관련된 댓글만 언론보도에 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게시자들인 개인들의 글을 언론행위로 보거나 그들에게 재갈물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물론 댓글 작성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한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언론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언론사나 포털사 등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언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므로(헌법 제21조),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언론의 정도이자 디지털 시대 언론의 책무가 아닐까? 자신이 보도한 기사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조정·중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해결해 주는 언론이야말로 오히려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당당한 언론사라는 느낌은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하는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COMMISSIONERS 위원동정

• 손관승 위원(서울제6중재부, 전 IMBC대표 이사 사장)이 펴낸 책 '그림형제의 길'(바다출판사)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술 지원 도서 중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 지성우 위원(서울제1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15년 12월 18일 청주대에서 개최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 정재규 부장(전북중재부,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북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 김봉철 위원(전북중재부,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2015년 12월 10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2016년도 사무식 가져

위원회는 1월 4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사무식을 가졌다.

박용상 위원장은 이날 사무식에서 "지난해 인터넷 언론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론중재법안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으며, "올해에는 실제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언론보도와 분쟁에 관한 판결례와 이론 등을 수집, 정리하여 언론조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조정실무기준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직 승진과 전보한 직위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무처 인사〉('16. 1. 1.자)

▲ 승진

전수상담팀장 임종우

▲ 전보

조시팀 박혜진, 기사심의팀 최승민, 홍보팀 최은진, 연구팀 김진하, 기사심의팀 정승희, 조사팀 김나래, 예산회계팀 이소영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2015년 12월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한위수 위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위원장에 남래진 위원(한서대 초빙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5월 13일까지 운영되며,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선거 관련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심의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위원장) ▲ 남래진 한서대 초빙교수(부위원장) ▲ 전진우 (전)동아일보 대기자 ▲ 오대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김화성 (전)동아일보 전문기자 ▲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 ▲ 윤영태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이종혁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겨울방학 청소년언론중재스쿨 운영

위원회는 1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함께 견학, 모의조정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한다. 청소년언론중재스쿨은 서울사무처 외에 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전북·경남사무소에서도 실시하며, 신청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언론중재 2015년 겨울호 발간

기간 언론중재 2015년 겨울호(통권 137호)가 1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뉴스플랫폼의 다변화와 선거 보도'를 주제로, SNS에서부터 신생뉴스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뉴스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선거콘텐츠와 공정성 등에 대한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로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의 유럽인권재판소의 Delfi 판결 평석이 수록되어 있다.

2016년도 사무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언론중재 2015년 겨울호 발간



천일염 위생과 관련한 논란,
VOD 중지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01

A 방송은 천일염 생산 환경의 위생 및 안전성 논란에 관해 개최된 공개토론회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천일염 관련 조합과 조정대상보도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된 모 염전은, 천일염은 식품공정의 관리기준을 적용받아 생산되는 안전한 식품이며 생산환경도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수산부「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신청인 주장에 관한 반론보도문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시보기(VOD) 재생 및 IPTV, 케이블TV에서의 재방송을 중지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정부가 발송한 공문에 대한
해석 논란,
반론보도로 직권결정

02

B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공문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자체 간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성이 있는 1,496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검토 및 정비를 '권고' 했을 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특정해 중단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고, 이 지원금은 이미 피신청인의 보도 이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유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공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론보도문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명시적인 촬영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초상을 공개한 보도,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3

C 방송사는 아파트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데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동대표의 횡포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미용실의 전경 및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하여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명시적인 촬영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C 방송사가 편집 상 실수로 신청인의 신상이 노출된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 점, 노출된 시간이 짧아 신청인이라고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의 항의를 전달 받고 곧바로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일부 조정하여 100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양당사자들에게 권유했다. 이에 양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핸드북 발간

위원회는 최근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담은 핸드북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실명보도 가능 여부',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위장취재 문제' 등 기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봤을 내용이 64개 문항으로 정리돼 수록되어 있다. 핸드북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도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언론 사람』 뉴스레터 발행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달 발행하는 『언론  사람』이 올해부터 뉴스레터로도 발행됩니다.

수신을 원하시면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신청해주세요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운영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신문, 잡지, 뉴스통신의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자체심의를 합니다.
- 후보자(출마 예정자)는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의 조치내용 :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 사실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권고 결정
- 후보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처리합니다.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